

한국,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 시동

한국 정부가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2032년 하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번 올림픽 공동 유치 계획안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림픽 공동 유치·개최를 위한 기본 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북한과 함께 올림픽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공동개최 사전 준비작업을 위한 정부 예산과 인력 투입의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 공동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한 사항”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계획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제 행사 유치에 필

요한 정부 지원과 조식을 위한 내부 법적 절차가 있다. 그런 절차의 일환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은 선언 이후로 한국 정부의 모든 남북 협력 제안에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올림픽 공동 유치 및 개최는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김정은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다. 남북은 2019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회의에서 올림픽 공동개최 의사를 확인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도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한국 정부가 거듭 피력한 남북 협력 구상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도 사실상 끊겨 있다. 2019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전은 관중 및 중계 없이 치러졌다. 여기에 북한 여자축구는 오는 2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최종예선에 불참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남북이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루이스 영어회화 시리즈

공항에 가야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나를 공항에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려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이럴 땐 “Come take me to the airport.”라고 하면 된다.

비슷한 유형의 문장을 더 소개한다.

한 문장을 20번씩 반복해 읽으면 모르는 사이에 영어 실력이 쑥쑥 늘어날 것이다.

1. 와서 이 방을 청소해.
Come clean this room.

2. 와서 나를 픽업해줘.
Come pick me up.

3. 와서 공항으로 데려다 줘.
Come take me to the airport.

4. 와서 날 도와줘.
Come help me.

5. 와서 이 문 좀 고쳐줘.
Come fix this door.

6. 와서 이 책상 좀 옮겨.
Come move this table.

7. 와서 나 점심 좀 사줘.
Come buy me lunch.

8. 가서 맥주 좀 사와.
Go buy some beer.

9. 그것들을 이 박스에 담아!
Put them in this box.

10. 이것을 저기다 치워주세요.
Put this over there.

☛ 결과를 보장하는 루이스 영어교실 제공
문의전화: (213) 284-4725 (CD, 교재)
905 S. Euclid St.#208, Fullerton, CA 92832

‘동물 학대 논란’ 셔틀콕 인조 깃털 사용 허용

내년부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공인 국제대회에서 거위 깃털 셔틀콕 대신 인조 깃털로 만든 셔틀콕이 사용된다.

BWF는 2021년부터 모든 공인 국제대회에서 인조 깃털 셔틀콕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일 허가했다.

그동안 셔틀콕은 둥근 코르크에 거위나 오리 깃털 16개가량을 꽂아 만들었다. 거위 날개 한쪽당 6~7개의 깃털을 뽑아 셔틀콕을 만드는데, 왼쪽과 오른쪽 날개 깃털의 결이 달라 섞어서 쓸 수도 없다. 한 마리에서 나오는 깃털로는 셔틀콕 한 개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셔틀콕 하나 만들기 위해 최소 3마리 이상에서 깃털을 뽑아야 한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 운동가들로부터 잔인한 제조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장기적으로 배드민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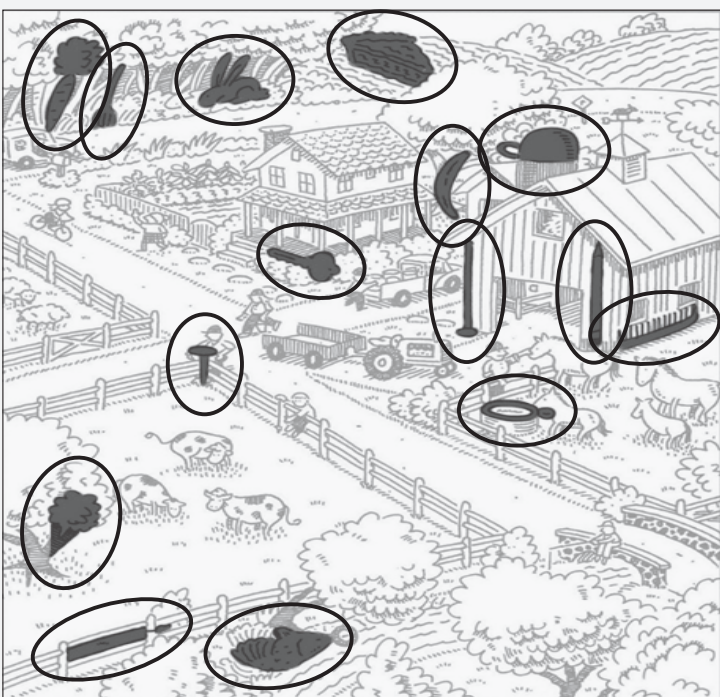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마스 룬드 BWF 사무총장은 “배드민턴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방안을 확보하고, 자연 깃털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조 깃털 셔틀콕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BWF가 최초로 승인한 인조 깃털 셔틀콕은 요넥스가 지난 5년간 개발한 기술로 만든 제품으로, 지난해 국제대회 3곳에서 최종 테스트를 받았다.

테스트 기간에 인조 깃털 셔틀콕을 사용한 선수들은 기존 자연산 깃털 셔틀콕과 비교해 성능은 매우 비슷하면서 내구성이 더 좋고 가격이 싸다고 평했다. 이런 까닭에 인조 깃털을 사용한 셔틀콕 사용은 배드민턴용품 비용 절감이란 측면에서 배드민턴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숨은그림찾기 정답



날말퍼즐 정답

	1과	메	2기			3시	
4공	유		5고	6진	감	래	
	불			위		7기	8선
9보	급	10기	지		11잔		죽
건		후		12팔	당	13대	교
14소	15문		16용			자	
	17화	중	지	18병		19대	장
	재			20가	랑	비	